

새 책

▶100세 철학자의 철학, 사랑 이야기 (김형석 지음)=100세를 맞이한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가 고독을 느끼는 젊은 세대에게 바치는 사랑과 영원에 대한 이야기다. 자아 상실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인생의 섭리를 제안하는 저자는 자아를 지키는 삶을 위하여 왜 사랑이 가장 귀한 가치인지, 그 목적과 대상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꿈꾸는 종착지에 닿을 수 있는지 등을 들려준다. 열림원. 1만5000원.



▶좋은 일자리의 힘 (제이넵 톤 지음, 최성욱 옮김)=우리나라 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 근로자이다. 기업은 인건비가 낮아져야 가격 경쟁력이 옳다고 생각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사회적 통념을 뒤엎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생생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행복한국출판. 1만6500원.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애덤 알터 지음, 홍지수 옮김)=인간은 하루 평균 3시간 가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깨어 있는 시간 중 1/4을 이것과 함께 보낸다고 하니 평생으로 치면 11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최고의 연구서'로 평가받는 이 책은 행위 중독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부키. 2만2000원.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최지웅 지음)=2016년 기준 한국에서 하루 평균 소비된 석유는 279만 3000배럴에 달한다. 운송에 사용된 석유는 32.6% 정도뿐이고, 절반이 넘는 52.8%는 플라스틱, 고무, 화학섬유 등을 만드는 석유화학 산업에 쓰인다. 석유가 현대인의 경제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석유가 강력한 영향을 미친 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뽑아 정리했다. 부키. 1만8000원.



▶있었지만 잊지 않은 것들 (김선영 지음)=종양내과 의사인 저자가 죽음과 삶, 그 경계에서 바라본 아버지의 죽음, 언젠가 맞이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사유하는 에세이를 펴냈다. 병원 내부의 풍경과 함께 안, 항암 치료, 대체 요법도 알려준다. 연명의료법, 사전돌봄계획, 완화적 진정 등 뜨거운 이슈들을 짚어가며 죽음에 대비하는 다양한 방법도 살펴본다. 은행나무. 1만3000원.



▶전국 책방 여행기 (석류 지음)=저자가 브런치에 '서점원이 사랑한 도서'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동네 책방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단순히 책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책과 그 공간에서 있었던 따스함, 그리고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동네책방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 있어 마치 여행기와도 같다. 동아사이. 1만5000원.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미증유 질병 박멸 못해도 통제는 가능”

장철훈 번역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

흑사병에서 에이즈까지 ‘온고지신’ 대처법 모색

1946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만명이 콜레라로 사망했고 장티푸스와 이질로 3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국전쟁기인 1951년에는 장티푸스가 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958년에는 일본 뇌염으로 2000명이 사망했다. 지금은 과거 흔했던 감염병이 크게 줄었지만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다.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을 겪으며 감염병이 언제든 우리 안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제주제일고와 부산대를 졸업한 감염병 전문가인 부산대 의학과 장철훈 교수가 번역한 어윈 W. 서먼의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은 세계사적 흐름에서 그 역사를 살핀 책이다. 질병에 맞서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담을 ‘온고지신’해 감염병이라는 ‘천발’을 오늘날 어떻게 헤쳐갈 것인지 제시했다.

저자가 꼽은 12가지 질병은 14세기 흑사병에서 현대의 에이즈까지 이른다. 역사의 줄기를 바꿨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정표가 되었던 공통점을 지녔다.

포르피린증과 혈우병은 영국·스페인·독일·러시아·미국의 정치사를 흔들었다. 감자마름병은 대규모 이민을 불러왔다. 콜레라는 위생 조치와 환자 간호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경구 수분요법 개발을 촉진시켰다. 천연두는 백신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박멸되었고 흑사병은 검역 조치의 중요성을 알렸다. 매독은 항균화학요법, 결핵은 약독화 백신 개발로 이어졌다. 말라리아와 황열병은 매개 곤충을 통제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인플루엔자와 HIV/에이즈는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의 현실을 드러낸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2019년 10대 건강 위협 요인 중 여섯 개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등 감염병이었다. 희망이 없지는 않다. 질병의 역사를 통해 박멸은 불가



능해도 통제는 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2007년 미국에서 출판된 도서로 국내에 처음 번역 소개한 장철훈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질병 통제를 위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성숙한 의식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핵 관련 연구로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 장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기술개발단장을 지냈고 현재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이사장,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있다. 부산대출판문화원. 1만8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한국사회를 뒤흔든 사법농단의 진실 기록

권석천 기자의 ‘두 얼굴의 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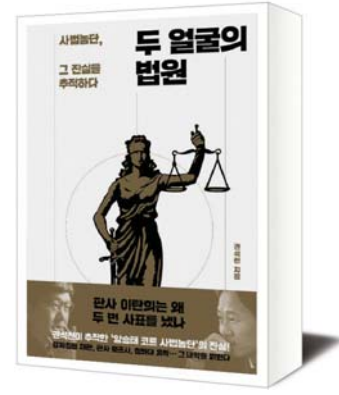
2012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013년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가 접수돼 2018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간 사건은 대법원에 묶여 있었다. 그 사이 원고 9명 중 8명이 숨지고 말았다. 이후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정부가 저지른 사법농단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결국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들은 공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저자는 사법농단이 ‘양승태 코트(court)’의 일탈이 아니라 대법원장 중심의 법원 시스템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조직논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실제 당시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되어 판사를 뒷조사하고, 법관들의 인터넷 카페를 사찰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법원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법

원 내 학술 연구단체를 해체시키기 위한 연구와 조직적인 탄압도 자행됐다. 재판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이 만들어지고, 청와대와 국회를 어떻게 움직일지 브레인스토밍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그런 일을 한 주체가 바로 판사들이었다.

베테랑 기자인 권석천의 ‘두 얼굴의 법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최초의 심층 기록이다. 보수적인 신문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진보적 논조의 명칼럼을 썼던 저자는 부당한 지시에 저항해 사표를 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배일을 벗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를 심층 인터뷰했다. 이를 시작으로 오랜 법조기자 생활에서 만났던 다양한 취재원의 증언을 듣고, 재판을 취재하고, 방대한 자료를 검토했다.

이 같이 폭넓은 취재 과정을 거친 저자는 사건이 처음 불거질 당



시의 상황과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담았다. 이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판사 이탄희가 왜 두 번의 사표를 내야 했는지 알게 되고, 한국 법원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도 목격할 수 있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내막은 이 재판이 한일 간의 마찰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사법농단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창비. 1만8000원.

표성준기자

이 책 김정배 작가 그림책



바다로 나간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어머니. 마을 사람들의 공동 작업으로 도대불을 만드는 과정을 그렸다.

제주 바다 비추던 노란 희망의 불빛



온통 푸른 색인 바다 위 노오란 등불이 반짝이고 있다. 파도와 싸우며 생을 헤쳐온 이들을 지켜온 불빛이다. 창문 열면 제주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서 태어난 김정배 작가가 바다를 비추는 희망의 불빛을 담은 창작집을 냈다. 에스카·자경 작가가 그림을 그린

‘반짝반짝 작은 등대 도대불’이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와 구엄리, 조천읍 북촌리, 한경면 고산리, 구좌읍 김녕리, 서귀포시 보목동 등에 여러 이름으로 남아있는 도대불은 마을 어부들이 관리하던 민간 등대였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인 60~70년대까지 고기잡이 나간 어부들을 위해 켜졌다고 한다. 소나무 가지로 불을 지피거나 물고기 기를을 이용해 호롱불을 켜서 빛을 뿌렸다.

‘반짝반짝 작은 등대 도대불’은 그같은 등대가 탄생한 사연을 상상을 더해 바닷가 마을 소년과 어머니 씨나갔다. 원담, 돌탑 쌓아 도대불 만든 사연 불타처럼 제주 돌을 이용한 대표적 멸실 위기 속 보존 가치 담아 인 제주 공동체의 해양문화유산으로 바다를 품고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간절함이 읽힌다.

“엄마는 커다란 돌덩이를 들고 와서 탑을 쌓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왜 돌탑을 쌓는 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는 탑을 쌓아서 불빛을 비추려는 거야.’ 나도 다음 날부터 엄마 몰래 탑 쌓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소년 달중이의 아버지는 갈치잡이를 위해 바다로 향했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목놓아 울던 소년의 어머니는 어느날부터 혼자서 포구로 나가 돌을 쌓기 시작한다. “포구에 불빛만 있었어도...”라는 동네 어부의 말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거였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탑 모양 돌을 쌓는 어머니를 보며 실성했다고 여겼다. 하지만 고깃배가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불빛을 내기 위해 돌을 쌓는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공동 작업에 나선다. 도대불이 완성되자 소년의 어머니는 매일 저녁 그곳으로 나가 불을 켜다. 언젠가 남편이 그 불빛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거라 믿으면서,

책 말미에는 마을에 흩어진 도대불 사진과 특징을 덧붙여 실었다. 갖가지 개발로 마을 지형이 바뀌며 훼손·멸실되어 가는 도대불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전해진다. 근래 제주 작가들의 동시·동화집을 아부지게 묶어내고 있는 한그루출판사에서 나왔다. 1만5000원. 진선희기자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흑염소 체험농장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래그
매월 추첨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 흑염소 먹이물이 (시간마다 진행)

▲ 흑염소 놀이터 (흑염소는 본능적으로 높은곳에 올라가는것을 좋아함)
현재 3000두 이상 사육

피톤치드(자연향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 편백숲길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토종 흑염소 요리 전문점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흑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술불구이 / 떡갈비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T. 064.805.5099

T. 064.764.6678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